

통권 제 192호

강남, 라 00943

2563
2019

10

불교 이야기
계학이란 무엇인가?



계율 이야기
행동과 몸가짐에
대한 계율



결망에 담긴 이야기
신은 손이 없잖은가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불교충지중

진리

- ❶ 현실로서 모든 일을 성취하려 하는 사람은 이는 사람의 도움 밖에 받지 못하고 정진하여 진리로써 성취하려 하는 사람은 많은 모르는 사람과 제불보살 및 천신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 어느 것이 크고 빠르겠느냐.
- ❷ 사람이 도우는 것은 이는 사람만이 도우게 되므로 범위가 적고, 진리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과 만물이다 도우게 되므로 범위가 크고 넓으니라.



위드 다르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다르마 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이며,

위드 다르마 는
다르마와 함께 한다는 뜻으로
진리와 함께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불교총지중은

생활불교를 실천하는 밀교종단이며 승속이 함께하는 불교로,
행복한 사회, 차별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이 시대의 대인불교입니다.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실천함으로써 이 땅에 불국정토를
엄원합니다.



살다보면 18

꽃, 마음껏 피어라.
그래야 꽃이다
이옥경



향유 24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강동현



사색 52

어머니의
텃밭에서
우연

04 불교이야기

10 마중물

14 계율이야기

18 살다보면

24 향유

30 산책

32 아름다운 세상

36 마음의 등불

40 십선성취

44 함께 만든 100년

48 씨앗 한 알

52 사색

56 새 이야기

62 차항기

66 걸망에 담긴 이야기

68 독자기고 1

70 독자기고 2

72 뜻 바꾸기

74 되짚어 보기

76 컬러링 만다라세상

계학이란 무엇인가? 화령 정사

들국화 화장실에서 농인 스님

행동과 몸가짐에 대한 계율 법경 정사

꽃, 마음껏 피어라. 그래야 꽃이다 이옥경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강동현

사는거 김대곤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조원화 전수

다시 이순신 김창숙

『죽음』을 읽고 덕현 전수

나의 소원... 자성 전수

나의 삶을 낱알이 촬영한다 법상 스님

어머니의 텃밭에서 우연

붉은머리오목눈이 백세 정옥식

차를 마시는 여러 형태 중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차를 마시나요? 김정애

신은 손이 없잖은가 법일 정사

빛의 화가들 전시를 보고 와서 여순애

동화구연을 배우며 김정숙

금강살타金剛薩埵 김재동

건달乾達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심안 心眼

하늘은
구름이 지나가야 보이고요.

바람은
나무가 흔들려야 보이지요.

사람은
눈을 감아야 더 잘 보이지요.

The Eyes of the Mind

The sky is seen
after clouds go by.

The wind is seen
when trees sway.

People are seen better
when we close our eyes.

- 글 : 홍사성 시집 '고마운 아침'에서

계학이란
무엇인가?

화령 정사
불교총지중 교육원장
철학박사
정심사주교

수계와 파계(4)

석가모니 부처님께서서는 파계의 두 번째 해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다.

다음에 거사들아, 계를 범한 파계자에게는 나쁜 평판이 생긴다. 이것이 파계자의 범계에 의한 두 번째 재화이다.

파계자에게는 나쁜 평판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절제되고 절도 있는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남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술을 잘 마시거나 사음을 너무 즐기는 사람이라면 아무 래도 중대한 일을 맡기기에는 망설여질 것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부정과 횡령을 일삼는 사람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직자로서 땅투기를 하는 사람들도 다 불투도계를 어 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해 결국은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잘 나가던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거짓말 때문에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하여 꽤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어느 대학의 여성 총장이 관직을 얻었다가 그동안 학위를 속 인 것이 드러나 며칠 만에 물러난 것도 거짓말 한 것이 화근이 되어서

그랬던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총장 자리에 가만히 있었어도 그렇게 전국적으로 거짓말 한 것이 탄로 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는데 장관을 해 보겠다고 욕심을 내었다가 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그동안 가짜 학벌로 대학 총장까지 하면서 거들먹거리다가 유명세를 타면서 그것이 들통 나 전국적인 망신을 당하게 되었으니 거짓말한 대기는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를 어기면 나쁜 평판이 생긴다고 하신 것입니다. 요즘은 워낙 투명한 사회가 되어가는 중이라 언제 어디서든 뭇뭇하려면 항상 스스로를 잘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천 여 년 전에 하신 부처님의 말씀은 오늘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부처님께서도 계를 어기는 사람은 어떤 모임에 가도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한다고 했습니다. 인간사회에서 모여 살면서 늘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를 어기면 그런 재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갖 바르지 못한 언행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 가셔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뭇뭇하지 못해서 늘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두려워합니다.

그래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개선의 희망이 있지만 온갖

잘못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굴고 도리어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점점 더 악업을 짓게 되어 벗어날 가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불교에서는 일천제^{一闍提}라고 합니다. 일천제는 이 찬티카^{icchantika}라는 말의 음사인테, '선근을 끊는다[단선근(斷善根)]'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근이 끊어져서 영원히 구제될 희망이 없는 사람이 일천제입니다.

주위를 살펴보면 일천제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일천제라는 표현을 써도 모든 사람들이 마음만 고쳐먹으면 다 성불할 수 있다고 합니다.

흉악한 살인범이라도 한 가닥 선근은 있습니다. 그 한 가닥의 선근도 잘 길러주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불교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워낙 뻔뻔하고 악독한 사람들도 있어 이렇게 일천제라는 비유를 썼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도 계를 어기면 정신이 착란되고 몽매한 상태로 죽는다고 하셨는데, 계를 어긴 사람은 죽기 전까지도 이러한 상태로 있다가 죽을 때도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계행을 지키고 청정한 생활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대체로 죽을 때

도 여러 가지 추한 모습을 보이기 마련입니다. 거기에다가 정신마저도 온전하지 못해 주위의 사람을 괴롭히고 가슴 아프게 합니다.

계를 지키 절제되고 절도 있으며 청정한 생활을 하지 않게 되면 정신이 흐려지는 것은 물론 우선 몸이 나빠집니다. 육식을 즐기거나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사람치고 나이 들어서까지 건강한 사람이 드뭅니다. 거기에다가 남의 물건 탐내고 거짓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로가 어떤지 주위를 관찰해 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은 조금도 거짓이 없습니다.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은 몸도 마음도 추하게 되어서 죽습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다시 태어나더라도 고훈에 태어나고 악취에 태어납니다.

여기에 반하여 계를 잘 지키는 지계자는 파계자와는 반대로 다섯 가지 공덕을 얻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계를 잘 지킴으로써 큰 재산을 얻을 수가 있고, 좋은 평판이 생기며, 어떤 모임에 가도 자신이 있고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 할 필요가 없으며, 죽을 때에도 바른 정신을 가지고 죽으며, 죽은 뒤에는 선취에 태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계를 잘 지키면 여러 가지 공덕이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불살생의 계를 지켜 자비심을 기쁨으로써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나를 해치지 않고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불투도의 계를

지킴으로써 욕심을 누르고 집착을 끊을 수 있습니다.

불사음으로써 감각적 탐욕을 버리고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불망어으로써 진실하고 성실한 생활을 이끌어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게 합니다. 또 술을 마시지 않음으로써 맑은 정신을 지니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니 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계만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적인 윤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늘 마음이 안정됨으로써 바른 지혜가 나타나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계율을 지키지 않고서는 어떤 행위를 하던 죄업을 더하는 어리석고 사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들국화 화장실에서

능인 스님

절에서는 화장실을 해우소^{解憂所}라고 부른다. 해우소에서 외는 진언^{眞言}이 있는데 그 첫머리는 ‘버리고 또 버리니 큰 기쁨 일세.’이다.

비우는 것은 큰 기쁨이다. 절간의 해우소는 그 깊이가 무척 깊다.

스님 셋이서 자기 절 뒷간 자랑을 했다.

“우리 절 뒷간은 불일을 다 보고 일어나면 그제서야 ‘척’하는 소리가 들린다.”

옆에 있던 스님이 말했다.

“우리 절 뒷간은 아침에 불일을 보고 저녁에 들어가면 그제서야 ‘척’하는 소리가 들린다.”

또 한 스님이 말했다.

“우리 절 뒷간은 정월 초하룻날 불일 본 소리를 아직도 들어보지 못했다.”

천생산 토굴 해우소는 이 세상에서 최고의 해우소였다. 커다란 고무통 위에 길다란 나무토막 두 개를 걸쳐놓은 것이 전부여서 비가 오면 우산을 쓰고 불일을 보고, 밤에는 별을 보면서 불일을 보아야 했지만, 주위에 들국화가 가득 피어 있어서 꽃밭으로 된 해우소였다.

향긋한 들국화 내음을 맡으며 따스한 햇살 아래 궁둥이를 내놓고 느긋하게 불일을 보고 있노라면 호텔 화장실은 아무 것도 아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가을날 오후, 밝은 햇살은 고요하기만 한데 붉게 물든 낙엽이 툭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들국화 해우소에 앉아 이렇게 읊조려 보았다. ▲

바람은
고개 너머 돌장승 아래

잠이 들고
노을 빛 물든 잎사귀 위로

한 뼘
살며시 햇살이 다가서면
미련 없이 떠나는 사람 마냥

홀홀
떨어져 내려
국화 향기 가득한 가을 마당에

일렁
노오란 파문이 번진다.

—『선방 이야기 토굴 이야기』 중에서—

*진언(眞言): 진실하여 거짓이 없는 말이라는 뜻으로, 불교에서 깨달음이나 서원을 나타내는 말.

행동과 몸가짐에 대한 계율

법경 정사

불교총지중 밀교연구소 소장

철학박사

법천사주교



청정한 계율 53

으스스한 곳에서 여자와 같이 앉아 있지 말라

옛말에 남녀칠세부동석^{男女七世不同席}이란 말이 있다. 남녀가 일곱 살이 되어서 같이 앉아 있지 말라는 말이다. 즉 일곱 살이 되면 벌써 이성을 안다는 얘기다. 그래서 한 자리에 앉게 되면 이성적 행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조심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어린 애들이라고 좋아하는 감정이 없으라는 법은 없다. 요즘 아이들은 유치원에 다니면서 벌써 이성을 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한다더니 나중에 커서 누구와 결혼하겠다는 등 이성에 대한 감정표현이 성인들에 비해 크게 뒤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연령이 더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말은 남녀삼세부동석^{男女三世不同席}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성에 대한 감정은 출가 수행자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출 재가를 막론하고 이성에 대한 감정은 다르지 않다. 다만 억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출가 수행자는 남녀관계에 있어서 근신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많다.

그 가운데 하나가 병여여좌계^{屏與女坐戒}이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병풍 뒤에 여자와 함께 앉아 있지 말라는 계다. 즉 으스스한 곳에서 여자와 같이 앉아 있지 말라는 얘기다. 계가 제정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사분율』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카알루다인 비구가 재우바이라는 여인의 집에 가서 밥을 얻어먹었다.

그런데 그전에 부처님께서 여인과 가까이 앉아 있지 말라고 하였으니 가까이 앉지 않는 대신 손이 닿지 않는 정도의 거리에, 그것도 문 뒤에 앉아서 여인과 얘기를 하며 밥을 먹었다. 이 소문이 퍼지자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셨다. “어떤 비구라도 여인과 함께 으스스한 곳에 앉아 있으면 바일제가 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와 같은 계를 제정하신 뜻은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성적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남녀 관계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참외 밭에서 신발 끈도 묶지 말라는 말과 같다. 공연히 오해를 살만한 일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래서 불가(佛家)에서는 출가수행자가 여인과 함께 같은 방에 있을 때는 문을 일부러 조금 열어 놓는 지혜를 발휘하기도 한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이다.

여인과 단 둘이 앉아 있지 말라

또 부처님은 여인과 단 둘이 앉아 있지 말라고 하셨다. 그 계가 독여여인좌계(獨與女人坐)다. 계가 제정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사분율』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카알루다인 비구가 재우바이라

는 여인의 집에서 가서 또 밥을 얻어먹었는데, 재우바이와 단 둘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 소문이 나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셨다. “어떤 비구라도 여인과 단 둘이 한 자리에 앉아 있으면 바일제가 되느니라.”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 계율을 문구대로 적용한다면 출가수행자는 신도와 같이 있기가 곤란할 것이다. 아니 어쩌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인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계율에 있어서 문구 그 자체 보다 문구에 담긴 뜻을 헤아려야 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여인과 단 둘이 있지 말라는 계율을 문구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출가수행자는 여자신도와 상담을 할 수 없고, 불공정진도 함께 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함께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한다는 것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다. 다만 조심해야 한다. 오해나 빌미를 줄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주위 사람에게 눈살을 찌푸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장난치지 말라, 손가락질을 하지 말라

출가수행자의 행동과 몸가짐 가운데 함부로 장난을 쳐서는 안 된다는 계율이 있다. 격력계(擊擿戒)이다.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부딪치고 친다는 뜻으로 장난치는 것을 말한다. 즉 간지럽히는 것을 말한다.



이 계가 제정된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 『사분율』의 내용이다.

부처님께서 기수급고독원에 계실 때 육군비구 중 한 사람이 다른 비구를 간지럽혀서 죽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계를 제정하셨다. “어떤 비구라도 손가락으로 서로 간지럽히면 바일제가 되느니라.”

상대에게 해를 입힐 정도의 심한 장난을 쳐서는 안된다는 가르침이다. 출가수행자라면 행동이 가벼워서는 안된다. 경망스럽게 말해서도 안된다. 이는 출가자 수행자가 위의를(威儀)과 정행(正行)을 갖추어야 한다는 훈계(訓戒)다. 우스개 소리에도 품격이 있고, 장난에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따라서 수행자라면 위트, 유머, 해학과 헛소리, 말장난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구분할 줄 모른다면 쓸데없는 말을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편이 훨씬 더 낫다. 그러나 위의를 격려계는 달리 해석되기도 한다. ‘손가락으로 간지럽히는 장난을 치지 말라’는 계가 아니라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계라는 것이다.

그 인연담은 다음과 같다. 『마하승기율』의 내용이다.

재일(在日)에 부처님께 예배를 하기 위해 우발라 비구니가 제자 지리 사미니와 함께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왔는데, 부처님께 예배한 후 부처님 가까이에서 있던 육군비구의 처소에 가서 앉았다. 그러나 그 사미니의 앉

는 방법이 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육군비구가 서로 손가락질하며 비웃었다. 그때에 한 바리문이 단정한 부인을 데리고 와서 부처님께 예배하러 왔다가 육군비구가 손가락질하고 웃는 것을 보고 부인은 자신을 비웃는 것이라고 오해를 했다.

그래서 부인은 “시문 석지는 의척을 모른다. 나를 비웃는다.”고 하면서 크게 화를 내었다. 이 인연을 말미암아 부처님께서 “손가락으로 서로 가리키면 바일제가 되느니라.” 하셨다.

사람 가운데 말을 할 때 손가락으로 사람을 가리키며 말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손가락질은 삿대질과 다름이 없다. 손가락질은 나쁜 행동이다. 손가락질은 자기도 모르게 몸에 배어버린 교악한 버릇이다.

출가수행자는 몸가짐과 행동에 특별히 유의해야 한다. 말은 더더욱 그러하다. 언행이 그 사람의 척도가 된다.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업(業)이기 때문이다. 나쁜 업이란 다른 것이 아니다. 좋지 못한 행동과 말이 악업(惡業)이다.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살펴보고 또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수행자에게 전해주는 가르침이다. ♫



꽃, 마음껏 피어라. 그래야 꽃이다

이옥경

수필가·방송작가

- 1984년 KBS 라디오 드라마 당선
- 1985년 문예지 '한국문학' 수필부문 신인상 당선
- 2013년 백교문학상 수상
- 한국문인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회원



아침에 눈을 뜨니 온몸이 뼈근하다. 어제 손주 녀석의 운동회를 주름잡았던 여파다. 나는 손주 녀석과 발목을 묶고 하나둘 하나둘 구령을 붙여가며 이인삼각 경기를 멋지게 해냈고, 학부모 50m 달리기에서도 3등을 했다(3명씩 뛰는 경기였지만).

이렇게 내가 손주 녀석과 뽀박질을 하게 된 건 올해 1학년이 된 녀석의 열화와 같은 청에 의해서다. 이 녀석은 제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줄 안다. 걸음마를 시작할 무렵부터 사철 밤낮 가리지 않고 저를 산으로 들로 바다로 끌고 다니며 뽀강이지 굴러듯 했으니 저도 나도 몸 튼튼, 마음 튼튼, 우리는 환상의 복식조다.

2년 전 어느 잡지에 '10년 후'를 주제로 썼던 「희망 사항」이라는 수필의 한 부분이다. 그런데, 말 그대로 희망 사항에 지나지 않았던 일을 현실로 바꿔 줄 놀랍고도 행복한 사건이 생겼다. 나와 함께 뽀박질할 손주가 태어난 것이다. 나를 할머니로 승격시켜 준 이 녀석은 글에서 얘기했던 대로 딱 10년 후, 딱 초등학교 1학년이 된다.

아직 백일도 안 된 손주를 들여다보면서, 만국기 휘날리는 운동장에서 이 녀석과 함께 멋진 경기를 펼치려면 체력 단련에 더욱 힘을 쏟아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우습기도 하지만, 제 부모야 뭐라든지 나는 이 녀석을 꼭 내 환상의 복식조로 만들 작정이다.

녀석에게 거는 나의 기대는 좀 남다른 편이다. 똑똑하고 영민하다면
야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할 일이겠지만 그보다 더 바라는 건 가슴이 따
뜻한 아이, 몸도 마음도 건강한 아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아이, 정직하
고 정의로운 아이,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아이로 자랐으면 하는 마음
이 더 크다. 좋은 건 다 갖다 붙였다면서, 그보다 더 큰 바람이 어디 있
겠냐고 지청구를 할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이다.

나는 단 한 번도 녀석이 세상의 높은 자리에 오르길 기원한 적도 없
고, 앞으로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 자신한다.

당장은 지금처럼 병글병글 잘 웃었으면 좋겠다. 잘 먹고 잘 자고 웅
가도 잘하고, 때 되면 영차! 뒤집기도 잘하고 온 방 안을 기어 다니며
온갖 것을 뒤집어엎고, 도리도리 짹짹도 큰 재주인 양 즐거워하고,
넘어지고 일어나며 뒹뒹뒹 걸음마에 신바람 내는....

또래들과 어울려 땀을 뻘뻘 흘리며 마음껏 뛰놀았으면 좋겠다.

때로는 노는 데 팔려 숙제도 잊어버리고, 제 엄마 아빠의 가슴에 격
정 하나 슬쩍 없어줄 만큼 호기심 가득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물질
의 달콤함보다 자연의 질박함을 소중히 여기고 저 혼자 우뚝 자라난
큰 나무가 아니라 더불어 숲을 이룰 줄 아는 마음 넓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재미있게 놀아주는 할머니가 되겠노라, 녀석의 부모,
즉 나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땅땅 못을 박았다. 자식을 똑똑한 아이로

키우고 싶은 부모의 뜻까지 좌지우지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내게는 할머니라는 특권이 있지 않은가.

녀석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따뜻하게 꽃 필 수 있다면 불량 할머니
쫓? 일도 아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한 치 건너 두 치, 나는 녀석의 부모가 아니라 할머니이기 때문이다.
이 한마디만 듣고도 그럼, 그게 그렇더라고, 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선
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반면에 에이, 뭘 그래? 다 손주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하면서 아들
며느리 눈치 같은 걸 볼 필요가 있겠느냐고 호언장담하는(예전의 나
처럼) 예비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을 것이고, 정답이 따로 있겠다면
살아보니 어디 그렇던가. 세상사 모든 게 내 뜻대로 된다면 근심 걱정
이 왜 있겠는가.

문제는 손주 녀석의 부모, 즉 내 아들과 며느리다. 이걸 위해서 안
된다고 쓰악한 표정을 짓다가 저건 저래서 안 된다고 마땅치 않아 하
다가 급기야 접근 금지령(?)이라도 내리면 어찌겠는가.

솔직히 말해 할머니는 힘이 없다. 지금도 아이 돌보는 일에 이려고
저려고 하면 단순히 의견을 내비쳤을 뿐인데도 책에는..., 인터넷을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답이 빛의 속도로 날아오는데 훗날
학교로 학원으로 뽕뽕이를 돌아야 할 녀석을 데리고 산으로 들로 쏘

다닌다? 땡모삼천지교라고, 지금도 열혈 부모의 싹이 보이는 아들 며느리가 어찌 나올지는 시쳇말로 안 봐도 비디오다.

그래도 내 생각은 다르다. 모두 다 행복을 꿈꾸는 것처럼, 아이들이라고 해서 다를 리 없다. 부모라고 해서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는 건 월권이다. 어른들이 만든 대한민국은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의 연구보고처럼 '학생들이 하루 15시간 동안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나라'이며 2009년 이래 6년 연속 OECD 국가 중 아동 행복지수가 꼴찌인 나라다. 아이들이 뚝뚝해야 한다고? 아니다. 아이들은 행복해야 한다.

행복의 비유가 적합하지는 않겠으나 <증일아함경>에서 부처께서는 세상에서 가장 얻기 힘든 것이 마음의 행복이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힘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이 행복의 힘이며 부처의 길도(佛道) 역시 행복의 힘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다.

집착에서 벗어나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으나 아직 추구하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고도 하셨다. 행복도 스스로 짓는 만큼이다. 뿌린 만큼 거두는 것이다. 제 이름대로, 제 색깔대로 피어나야 꽃이다. 그래야 건강하고 행복한 꽃이 된다. 그래야 세상도 함께 건강하고 행복해진다. 아이고, 다리 허리 어깨야~온몸이 다 쭈신다.

칠순을 넘긴 나이에 손주가 조른다고 해서 냉큼 '할머니와 함께 춤

을!' 경연 대회에 OK를 하다니.... 젊어서는 나도 '한 춤' 했는데 요즘 춤은 흥내 내기도 어렵다.

게다가 우리 손주 놈 잔소리는 또 얼마나 심한지! 연습할 때면 “이 여사, 그게 아니고!”, “이 여사, 또 틀렸어!”, “이 여사, 이렇게 하라니까!” 잔소리가 바가지로 쏟아진다. 그래도 어찌겠는가.

손주 놈이 1등 상품인 여행상품권을 받아서 이 할머니와 함께 배낭여행을 가겠다는걸. 겹쳐한 다짐을 담아 또다시 써 보는 훗날의 일기다.

넘치는 사랑을 주되 땡목의 사랑에 빠지지 않기를. 격려하고 응원하되 간섭하고 속박하지 않기를. 언제나 엄지 척~수고했어! 잘했어! 백 번 천 번 믿어 줄 수 있기를. ♫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강동현
관성사 교도



세탁한 빨래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기에 출근하기 전에 세탁기에 세탁조 청소 모드를 해 놓고 나왔다. 나는 빨래에 민감하기에 세탁기를 사오고 나서 주기적으로 세탁조 청소를 했고 시중에 나온 여러 가지 제품도 쓰고 방송에 나오는 것도 꼼꼼히 챙겨보고 그대로 잘 따라서 해 왔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빨래에 냄새가 나서 행굼을 추가해도 도통 냄새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러다가 빨래에서 이상한 나뭇잎 같은 것도 보이고 해서 세탁조 청소를 더 자주 했다.

그런데 며칠 째 세탁조 청소를 했는데도 나뭇잎 같은 것이 없어지지 않았다. 인터넷에 보니 세탁조 청소를 하는 전문 업체가 있기에 전문 업체에 맡기려고 마음을 먹었다. 빨래는 며칠 사이에 쌓이고 쌓여서 어쩔 수 없이 손빨래를 하기로 했다. 얇은 것을 빨고 탈수도 못하고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빨랫줄에 넣고 보니 어렸을 때, 토요일마다 언니와 빨래를 했던 기억이 났다.

일주일치 빨래를 언니와 할라치면 마음이 무거웠다. 언니가 비누칠을 하고 빨면 나는 행굼을 했는데 어찌나 힘들던지 그래도 여름이

면 좀 괜찮았다. 언니랑 무거운 옷은 둘이서 맞잡고 돌려가며 짚는데
그걸 빨래 줄에 넣어놓고 바라보고 있으면 평화로웠다.

빨래 줄에 널린 빨래를 보고 흐뭇했는지 노동이 힘들었는지 나는
낮잠을 편히 잘 수 있었다. 지금은 힘든 것은 생각 안 나고 평화로운
것만 생각이 나서 종종 “마당에 빨래 넣어놓고 물이 똑똑 떨어지는
것을 보고 낮잠을 자고 싶어. 참 평화롭지.” 하고 아련한 눈빛을 하고
말을 한다.

그런데 세탁기에 길들여진 지금, 빨래가 큰 노동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있다. 수건들을 삶고 뜨거운 열기를 받으며 그것을 빨고 있으
니 어깨도 아프고 얼굴도 화끈 거렸다.

언니랑 빨래를 할 때, 언니가 빨면 내가 행궤는데 내 노동이 더 힘
든 것 같아서 언니한테 바꿔서 하자고 투정을 부린 적이 있었다.

겨울 빨래는 행궤 때 뜨거운 물이 없으면 손이 엄청 시렸는데, 연탄
불에 올려놓은 물은 뜨거워질 기미가 없고 찬기만 슬쩍 없앤 물로 행
구는 것은 엄청 힘들었다.

언니가 빨래를 하고 행구는 것도 도와줬는데 그냥 나는 행구는 게
싫고 조금이라도 일을 줄여볼 생각으로 언니랑 일을 바꿨다가 엄청
힘들었던 기억이 있다. 그 다음부터는 언니가 시키는 대로 했다.

내가 언니가 아니라서 엄청 다행이라고 생각한 것이 기억이 난
다. 별게 다 새록새록 기억이 났다. 수건 삶은 것을 열심히 빨고 있으
니 남편이 세탁실로 와서는 “세탁기 분리해서 청소를 하면 좋겠는데
요.” 하기에 “월요일에 전문 업체에 연락하려고 하고 있어요.” 했더니
남편이 호기롭게 자기가 세탁조를 분리 해 보겠다고 했다. “전문 업
체가 왜 있겠어요? 세탁기 망치지 말고 그만뒤요.” 했다.

남편은 무슨 오기가 났는지 세탁기를 망치면 자기가 사주겠다고
했다. 나는 남편이 세탁기를 분리하고 청소를 하면 세탁조 청소업체
에 주는 수고비를 주겠다고 서로 타협을 봤다.

남편이 인터넷으로 여기저기 검색을 하는 동안에 나는 언제 끝날
지도 모르는 빨래를 했다. 하루에 몇 개씩 나오는 수건들과 한 번 걸
치고 나간 옷은 더럽지 않고 땀 냄새도 안 나는데 빨래 통에 넣는 가
죽들에게 일장 연설을 했다.

“환경을 생각하란 말이야.”라고 했지만 빨래가 너무 많아서 화가
났다. 수건 빨래가 끝나자 어깨가 빠지질 듯이 아프고 손목이 아려서
아직 남아 있는 다른 빨래는 하지도 못하고 방에 와서 드러누웠다.

탈수를 못해서 건조기에 넣지도 못하고 무거운 수건을 손으로 대
충 짜서 빨래 줄에 넣어놓고 보니 일요일이 후딱 지나있었다. 세탁기
가 엄청나게 고맙다는 생각을 했다.

“세탁기 발명한 사람님. 감사합니다. 에구구.” 앓는 소리를 하고 누워버렸다. 남편이 내가 수건 빨래를 하는 동안에 일요일에도 문을 여는 근처 철물점을 다 돌아다니고 6킬로미터 안에 있는 대형마트를 다 돌고 나서야 공구를 사서 돌아왔다.

남편과 함께 세탁기를 열어 보았다. 나는 새로운 세탁기를 살 수 있을 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세탁조 분해는 세탁에 해를 끼칠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았다.

몇 번의 작업 끝에 깨끗해 보이지만 세탁조 바깥쪽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끈적한 세탁조를 분리해 냈다. 서로 당황해서 얼굴만 볼 수밖에 없었다. 며칠 째 세탁조 청소를 한다고 불림과 세탁조 청소 모드는 왜 했는지 모르겠고,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깨끗해지지 않는 세탁통을 보고 나서 화가 났고, 정보채널에서 보여준 세탁기는 만 나라 세탁기인가 싶었다.

그리고 깨끗한 세탁을 위해서 행굼 추가와 삶아서 세탁기에 넣은 수건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다. 서로 한숨을 푹푹 쉬면서 더러운 세탁조를 수세미로 닦고 세탁통을 솔로 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다.

속 시원하게 세탁통을 닦고 세탁기 바닥에 붙은 세제 덩어리와 진흙 같은 이물질들을 닦아내는데 진이 다 빠졌다. 전문 업체에 맡기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세탁기 안에 흙이 왜 눌러 붙어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집에 있는 모든 수도에 정수 필터를 달기로 했다. 두드러기도 자주 나서 세탁 세제도 가려서 쓰고 금방 사온 옷은 한번 빨아서 입었는데 다 부질 없었구나 싶었다.

남편이 세탁조 청소를 6개월에 한 번씩 해주겠다고 했다. 남편한테 세탁조 청소비용을 주고 청소해서 깨끗한 세탁기에 남은 빨래를 넣고 나서 쓰러져 잤다. 하루가 너무 힘들었다. 다음 날은 병원에 가서 손목을 치료하고 어깨를 치료했다. 빨래 좀 했다고 아프다니....

누가 들어도 옷을 일이지만 고되고 힘들었다. 세탁조를 한 번 청소하고 나니 세탁을 할 때도 잘못된 습관이 있나 살펴보게 된다.

과하게 세제를 넣지는 않았는지 살펴보고 한 번 더 입어도 되는 것인가 판단하게 된다. 과하게 깔끔을 떨던 나도 조금 너그러워졌다. ♫



그냥 좀
쉬우면 안되나

그냥저냥
걷는것 처럼 쉬우면 안되나

웃고 살면 안되나

하늘에 구름 당연하듯
그냥 살면 안되나

초기 불교의 입장에서 본 명상과 깨달음

묘원화 전수
박통사



초기불교의 계율을 원칙대로 고수하는 불교를 테라와다(Theravada, 상좌부불교)라고 한다. 테라와다는 ‘장로들의 길’이라는 뜻으로 석가모니 붓다가 사용한 언어인 팔리어(빠알리어)로 된 경전인 니까야(nikāya, 아함경)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에 대승불교보다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더 정확하게 나타나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초기불교는 스리랑카로 전해져 동남아시아 전반에 전파되었으며, 오늘날도 부처님 재세 시와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고 있다. 현재 태국에서는 계행이, 미얀마에서는 아비담마와 위빠사나 수행이, 스리랑카에서는 경전 연구가 뛰어나다.

포럼 시작에서 용타 스님은 진정한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수행자라면 열반을 몸소 보여주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을 하고, 제자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펼치셨는지, 그 제자들 중 열반을 성취한 제자들은 또 어떤 수행을 통해 아라한이 되었는지 경전에 입각하여 조사하고 공부하여 실제 수행에 활용해야 한다고 하셨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다면 오늘 포럼에서 첫 번째 순서로 초기불교에서 보여주는 석가모니 부처님과 그 제자들의 수행 방법 소개는 아주 뜻 깊으며, 주의해서 봐야한다.

발표 김열권 (마하위빠사나 명상원 원장)

토론 김재성 (자애통찰 명상원 대표, 농인대학원대학교 명상심리학과 교수)

초기불교

초기불교란 불교가 발생한 인도에서 석가모니 붓다와 그 제자들의 3대에 이르기까지 또는 제 2차 결집 이전까지의 불교를 말한다. 즉 석가모니 부처님의 재세 시와 불멸 후 약 100년 정도까지이다.

따라서 초기불교는 붓다와 그의 제자들의 가르침을 담은 경장과 승가의 규칙을 담은 율장 속에 남아 있으며, 경장과 율장, 불교의 공통된 가르침에 대해 다룬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의 출가 목적은 생사고의 해탈에 있다. 부처님은 8선정의 성취 후에 '이 법은 선정의 경지에만 들게 할 뿐, 갈애가 없고 고가 멸한 열반에는 이르지 못한다. -맛지마니까야 26-' 하시고, 스승님들을 떠나 홀로 보리수 아래에서 12연기를 관찰하고 4성제로 깨달음을 정리하셨다. - 맛지마니까야 36 -

부처님의 깨달음은 중도로 그 수행핵심은 4성제 12연기관이다.
법구경에 있는 부처님의 오도송이다.

“수많은 태어남, 그 윤회 속을 헤매어 왔네.
집을 짓는 자(오온)가 누구인지 알려고
찾아 헤매이다 헤매이다 찾지 못하였네.
거듭거듭 태어남은 괴로움이어라.
아, 집을 짓는 자여!
마침내 너를 찾아냈도다.
너는 이제 다시는 집을 짓지 못하리라.
모든 서까래(번뇌)는 부서졌고
대들보(무명)은 산산조각이 났도다.
나의 마음은 열반에 이르렀고
모든 갈애는 사라졌다네.”
- 법구경 153 -

부처님의 출가 제자들

부처님의 출가 제자들 중에는 많은 아라한들이 있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정각 후에 오비구를 다시 만나 '수행자들은 두 극단을 떠나 중도를 걸어야 하며, 4성제로 곤단나를 수다원파에 이르게 하고, 오온의 무아관찰로 아라한을 성취케 하셨다.

- 쌍웃다니까야 초전법륜경 / 마하뱃가 5-420. 율장대품 -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의 감각관찰 설법을 듣고 14일만에 아라한과를 성취했다. - 맛지마니까야 74의 디가나카다경 -

목련 존자는 심혜탈과 무상삼매를 성취하고 -쌍웃다니까야 4:268, 일체(오온, 12처, 18계에서 영원하고 실체가 있다고 해서는 안 된다.)에서 어디에도 집착할 것이 없다는 설법을 듣고 7일만에 아라한이 되었다. - 앙굿따라니까야 7:58 -

마하가섭 존자도 부정관과 호흡관찰로 7일만에 아라한이 되었다.
- 쌍웃다니까야 2:217 -

라훌라 존자도 호흡관찰, 오온에서 무상, 고, 무아를 관찰케 하시어 아라한으로 이끄셨다. - 쌍웃다니까야 2:249 - ▲



다시 이순신

김창숙(金昌淑)

1879~1962

호는 심산(心山), 독립운동가
성균관대를 세운 교육자



將軍祠下竹林間
底事書生痛哭還
誓海盟山何處是
東鯨日噴接天瀾

장군사하죽림간
저사서생통곡환
서해맹산하처시
동경일본접천란

장군의 사당 아래 대숲 사이에서
어인 일로 서생은 통곡하고 돌아오나
바다 산에 맹세하던 곳 그 어디메뇨
동쪽 고래 날로 하늘에 닿을 듯 물을 뿜네

- 김창숙(金昌淑), 『심산유고(心山遺稿)』 권1 -

민족이라는 상상적인 공동체는 영웅을 필요로 하기 마련이다. 영웅은 시대의 열망과 목적에 따라 재현되면서 민족의 집단적 기억으로 되 살아난다. 우리 민족에게 이순신만큼 강력하고도 깊은 울림을 주는 영웅이 있을까.

이순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민족을 구원한 무결점의 성웅(聖雄)에서부터 고뇌와 갈등에 번민하는 실존(實存)의 인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소환되고 있다. 특히 구한말에서 일제 강점기에 이르는 기간에 이순신은

당연히 민족이 처한 난관의 극복과 위안, 승리에 대한 열망의 상징이었다. 독립을 위해 맹렬하게 활동하다가 검거되어 고문후유증으로 장애를 입고 은둔하던 당시(1936년) 심산^{심산} 김창숙에게 그것은 더욱 절실하였으리라.

꿈속에서 충무공의 사당을 배알하고 통곡하고 시를 읊었다는 것도 그러한 자신의 정황과 심사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함께한 김진우(1883~1950)는 구한말 의병으로, 상해 임시정부 의원으로 활동하였던 인물인데, 당대 묵죽^{묵죽}의 최고봉으로도 명성이 높았다.

‘통곡하고 돌아오는 서생’은 심산 자신 또는 일행을 가리키며, 통곡하는 이유는 다음 두 구에서 알 수 있다.

‘서해맹산^{서해맹산}’은 이순신의 시「진중음(陣中吟)」의 “바다에 서약하니 어룡이 꿈틀대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알아주네. [誓海漁龍動 盟山草木知]” 구절을 인용한 것이다.

동쪽 고래가 날마다 하늘까지 물을 뿜는다는 것은 한창 왕성한 일제의 세력을 뜻한다. 곧 암울한 당대의 현실을 타개할 이순신과 같은 영웅이 없음을 한탄하고 강성한 일제에 대한 분노를 표출한 것이다.

이러한 비분강개의 기저에 있는 것은 국난 극복에 대한 강건한 의지와 굳은 열망이리라.

역사적으로 위기 때마다 이순신을 불렀다. 정치권에서 이순신을 부르고 이순신의 리더십을 부르짖을 때면 반대편에서는 단순한 진영논리로 비판의 화살을 보낸다. 그러나 이순신의 리더십을 제대로 실천하는 것을 누구라고 바라지 않으랴.

‘동경일본^{東經日本}’을 다시 획책하는 작금에 우리는 다시 이순신을 부른다. 그러나 그 부름은 비장하기보다는 오히려 유쾌하고 암울하기보다는 오히려 희망적이다. ▲



해설 | 한국고전번역원 정동화 책임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우리 선조들의 정신문화를 담고 있는 한문 고전의 수집·정리·번역을 통해 한국학 연구의 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07년 11월 교육부 산하 학술연구기관으로 출범한 기관



『죽음』이라는 소설은 『개미』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입니다. 처음 책 제목을 보고 내용이 궁금해서 읽게 되었습니다.

내가 읽은 『지장경』과 같은 내용일까? 아니면 전혀 다른 내용의 소설일까? 어떤 식으로 다루어졌을까 몹시 궁금했습니다.

처음 『지장경』을 읽었을 때 먼저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지으면 진짜 무서운 곳으로 가서 벌을 받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죽음에 대해 커다란 공포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에서는 죽음을 재미있고 아주 경쾌하게 다루어 '죽음도 이 세상과 똑같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소설은 추리 형식으로 저승과 이승을 오가며 죽음에 대해 파헤치고 있습니다.

책의 첫 문장은 '누가 날 죽였지'입니다. 주인공이 자신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병원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면서 몇 초 동안에 죽음의 일곱 단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충격, 부정, 분노, 타협, 슬픔, 체념, 수용을 거치면서 자신의 죽음을 인지하게 됩니다. 이 소설의 줄거리는 주인공이 저승에서 이승과 저승을 연결시켜주는 영매를 만남으로써 자신의 죽음을 알게 되고, 자신을 죽인 범인을 잡으려고 주인공은 저승에서, 영매는 이승에서 수사를 하

는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죽음으로 인한 슬픔보다, 자신의 몸이 자유로이 왔다 갔다 하는 행동과 이승의 사람들에게 보이지는 않지만 자신이 그들의 행동과 이야기를 듣는 새로운 경험을 경이롭게 여기고 있는데, 이 장면에서 죽음이 새롭게 느껴지고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주인공은 수사를 하면서 자신이 죽은 이후의 시간만큼 똑같은 시간이 새롭게 주어진다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살아온 시간만큼 다시 똑같은 시간이 새롭게 주어진다면 지금보다 더 잘 할 수 있을까 하고 반문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진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똑같은 실수는 반복해서 할 것이고 나쁜 버릇은 여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회 역시 거듭해서 하게 될 것이므로 시간을 다시 준다고 해도 별로 다를 것도,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본문 중에 주인공이 죽어서 회상에 잠기며 말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째, 인간의 삶은 짧기 때문에 때순간 자신에게 이롭게 쓸 필요가 있다. 둘째,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셋째, 실패해도 괜찮다.

넷째,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대신 사랑해 달라고 할 수 없다. 스스로 사랑하는 일은 각자의 몫이다. 다섯째, 만물은 변화하고 움직인다.

여섯째, 지금 갖고 있지 않은 것을 가지려 하기보다 지금 가진 것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살아 있을 때 열심히, 후회 없이 이

여섯 가지를 가슴에 새기고 산다면 생의 마지막에 그나마 회한은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고 삶의 방향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죽음이 두렵게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어찌 이렇게도 죽음을 흥미롭게 썼을까.

상상력이 대단히 뛰어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죽음의 세계는 영혼들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은 저승에서 이승과 다르지 않게 생활하고, 생각하고, 영혼들끼리 만나고 헤어지고 있습니다.

시는 모습은 이승이나 저승이나 다를 바 없이 똑같다는 생각입니다. 육체가 없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나 자신이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든 책,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조금은 사라지게 만든 책, 그래서 죽음에 대해 새로운 생각을 갖게 한 책, 그 가운데 분명한 사실은 죄지으면 그곳에 가서도 엄청 고생한다는 것입니다. 책을 덮고 죽음에 대해 다시 생각해봅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



나의 소원...

자성 전수
법성사

김구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신다면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요.”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하는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 높여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요.” 하고 대



답할 것이다.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나라를 위해 나라를 찾기 위해 싸워온 수많은 독립운동가 모두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자주 독립에 대한 우리 민족의 함성은 끊임이 없고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일본에 대한 항거는 식을 줄 모르는 상황에서 이봉창, 윤봉길 의사의 의거 배후로 지목되어 높아진 명성만큼이나 일제의 타겟이 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끌어 온 김구 선생님...

자주 독립에 대한 의지만큼은 누구 보다고 뛰어 나셨고 고된 역경 속에서도 그 뜻을 저버리지 않았던 독립운동가의 대부이신 김구 선생님은 그 당시 60만원(현재의 화폐 가치로 따져보면 약 200억이 된다고 함)의 현상금까지 걸린 수배자 신세가 되시고 높은 현상금으로 중국인이나 서양인이나 김구 선생님 체포에 혈안이 되어 8년 동안의 도피생활도 하시게 됩니다.

1938년 독립운동 대표들이 통합을 논의하던 연회장에서 밀정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죽거나 중상을 입은 남목청 사건에서 김구 선생은 총상을 입고 중태에 빠지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독립에 대한 불굴의 의지로 기적적으로 살아나셨고 계속해서 독립에 대한 뜻을 펼치셨습니다.

하지만 그리도 바라던 대한의 자주 독립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남과 북으로 갈라진 조국은 있을 수 없다며 자주 독립에 대한 뜻을 계속해서

펼치셨지만 조국은 끝내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6.25가 일어나기 전 해인 1949년 암살로 사망 하셨습니다.

아버지를 도와 다양한 독립운동에 참여한 김구 선생님의 장남 김인... 독립운동가 가족이기에 겪어야 했던 가혹한 현실들 또한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김인의 아내(안중근의 조카 안미생)는 광복을 앞두고 폐병으로 위독한 남편을 위해 시아버지인 김구 선생님께 폐니실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하였으나 김구 선생은 “지금 우리 동자들이 먹지도 못하고 약을 쓰지 못해 죽어 가는데 내 아들이라고 어떻게 특혜를 줄 수 있겠니...”라고 단호히 거절하셨고, 아들 김인은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운명하게 되십니다.

살아생전에 김인은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지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는 우리는 선구자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독립운동가의 가족들 또한 모진 세월을 보내며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했고, 남모를 고통 속에서 힘겨운 삶을 살았기에 우리는 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토히로부미를 암살한 안중근 의사의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 또한 우리는 위대한 어머니상 중에 한분이라 잘 알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옥고를 치루고 사형집행을 선고 받았을 때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는 것이 마음에 걸려 항소를 고민하고 있던 중 동생들을 통해 전해진 어머니의 편지 한통...



네가 만약 늙은 어미보다 먼저 죽는 것을
불효라 생각한다면 이 어미는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너의 죽음은 너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조선인 전체의
공분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네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에 목숨을
구걸하는 것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 맘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걸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다...



자주 독립이라는 조국의 미래를 꿈꿔온 독립운동가와 그 가족들의 수많은 희생들...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임을 되새겨 봅니다... ♣

나의 삶을 낱알이 촬영한다

법상 스님



만약에 여러분이 수백 명, 수천 명 앞에서 연설을 하거나, 혹은 요즘 유행하는 TV 프로의 주인공이 되어 삶을 살아가는 모습 하나하나가 TV로 방영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때 우리는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지도 않을 것이고, 나쁜 행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군생활 또한 '진짜사나이'라는 TV 프로에서처럼 군생활 자체를 TV로 찍으면서 하게 된다면, 훨씬 더 강인하게 보이려고 애쓰고, 더 선임이나 후임에게도 잘 하고, 설사 혼을 낸다고 할지라도 양심에 어긋나



지 않고, 꼭 필요한 명분이 있을 때만 화도 내게 될 것입니다.

‘아빠 어디가’라는 TV 프로를 보니, 처음에는 자녀들과 함께 놀아주지도 않고 평소 삶을 살던 사람들이 TV 프로를 찍게 되다 보니, 더욱더 잘 놀아주게 되고, 함께 대화도 하면서 아름답고 훈훈한 모습들을 연출하게 되네요.

이처럼 우리는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의 사생활이 노출되고 있는 동안에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행동하게 되고, 나를 더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도 됩니다.

그건 바로 내가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고, 관심 받고 싶고, 인정 받고 싶고, 또 존중받으며, 사랑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보다 많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더욱 양심적이고, 이해롭고, 자비롭게 변하게 마련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TV 프로에서 우리의 매 순간의 사생활을 찍지 않고는 있지만, 이 우주법계는 한 치도 오차 없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가 살아 온 전체의 삶을 파노라마 영화처럼 전체적으로 다시 재경험하면서 살펴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처럼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대충대충 살거나, 이기적으로 살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지켜보고 기억하고 있는 우주법계의 기능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이유도 그 사람과 나만 아는 것이니까 그러기 쉽지요. 그러나 사실 아무리 사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곧 이 우주법계의 대변자로서 내 앞에 나타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를 무시하는 것은 곧 이 우주법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화내고 욕하고 무시하던 그 모든 행위 하나하나가 TV로 촬영을 하듯, 이 우주법계는 고스란히 보고 있다가, 그대로 인과응보의 결과를 보내줄 것입니다.

특히 나의 가족이나 친구들처럼 가까운 인연관계라면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들 앞에서는 잘 하고, 말씨도 부드럽고, 행동도 자비롭지만, 집안에 들어오면 화도 잘 내고, 무시하기도 하지요. 부모님은 나를 잘 아니까, 부모님에게는 대충 해도 되고, 화도 쉽게 내고, 그러기 쉽습니다. 나와 가까운 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벗과 친지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참된 지혜와 사랑은 우주 끝까지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주 전체와의 관계 회복인 것이지요. 어떤 마음이, 어떤 행동이, 어떤 의도가 나에게서 나가는지가 중요하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는 이 우주법계와 사랑에 빠진 것입니다. 내 삶에 등장하는, 오늘 내 앞에 나타나는 바로 그 한 사람에게 그 순간의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는 인간의 몸을 하고 나타난 부처이며, 우주전체의 대변자이기 때문입니다. ♫

- BBS 불교방송 라디오 '법상스님의 묵탁소리'





사진이 돌아 왔다. 잘 챙겨둔 상자 안에는 내가 대학을 졸업 했을 때 찍은 학사모 사진과 결혼사진, 딸의 돌 기념사진이 들어 있었다.

며칠 전 아내가 울산에서 혼자 계시는 어머니에게 점심이라도 대접 하겠다고 들렀다가 어머니로부터 받아 온 사진이다.

학사모 사진에는 36년 전 한 젊은 청년이 의지에 찬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아내와 찍은 결혼사진은 너무나 촌스러워 웃음이 저절로 터져 나왔다. 둘 사진에 있는 딸은 어느새 그도 결혼하여 한 아이의 엄마가 되었다. 어머니는 아내에게 “이제 내가 정신도 자꾸 없어지고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정신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하나

하나 정리하고 싶다.” 하시면서 사진을 내어 놓으셨다.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갑자기 말문이 막히고 눈물이 뿔뿔 났다.

오래전 부모님을 찾아뵈었을 때이다. 두 분은 텃밭에서 묵묵히 일을 하고 계셨다. 평생 공무원으로 사셨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전혀 뜻밖의 변신이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에 모자를 쓰시고 밭 한 가운데 쪼그려 앉아 일을 하시다 아들을 반기시는 두 분의 모습은 마치 한 장의 사진처럼 내 가슴에 새겨졌다.

놀라워하는 나에게 어머니는 “너거 아버지가 너무 적적해 하시는 것 같아 텃밭을 해 보자고 했다.” 하시면서 조용히 웃음을 지었다. “아버지! 보기가 참 좋습니다.” 라고 말을 건네자 아버지는 대답 대신 “별일 없지?”하고 천천히 밭에서 걸어 나오셨다. 아마 그때 아버지의 나이가 지금의 내 나이 보다 몇 살 아래였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그 후 아버지는 텃밭에 마음을 붙이고 사시다가 18년 전에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홀로 텃밭을 가꾸시며 그 자리에서 자식들을 기다리셨다.

며칠 후면 처서❦이다. 처서가 되면 모기 입이 뻐뻐해진다고 한다. 한 여름의 무더위도 서서히 물러나고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찾아 올 것이다. 나무 위에서 매미 울음소리가 요란하다. 매미는 여름과 함께 떠날 채비를 끝내고 아쉬운 작별을 고❦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이맘때쯤이면 우리 삼형제는 어김없이 어머니에게로 달려간다.



어머니의 텃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80평 정도의 텃밭에는 배추 무 고추 등 갖은 채소류가 어머니의 손길로 자란다. 하지만 이제는 가을 농사를 준비할 때다. 하늘이 조금은 높아지고 갈바람이 선뜻 부는 날을 골라 삼형제에게는 배추와 무를 파종하는 임무가 주어진다.

파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밭을 갈아엎고 밭고랑을 낸 다음 두둑위에 비닐 *덮개를 해야 한다. 이 작업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들 삼형제의 몫이 되었다. 파종을 준비하는 이 날은 딸, 며느리도 참석치 않고 오로지 어머니와 아들 셋만이 함께 하는 날이다.

어머니는 손맛을 되살려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신다. 86세이신 어머니에게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겨났는지 놀랍기만 하다.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다시 찾은 듯 마음은 들떠있다.

지난 해 여름은 유난히 덥기도 했거니와 그 꼬리도 길었다. 새벽에 도착한 아들들은 어머니의 작업 지시에 따라 텃밭에 나갔다. 겨울 동안 딱딱해진 땅을 갈아엎기 위하여 삽질이 시작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 해가 달아오르자 아들들의 얼굴은 땀으로 범벅이 되고 삽질의 횃수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어머니는 시원하게 준비된 물병과 땀수건을 들고 이 아들과 저 아들에게로 바쁘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즐거워 하셨다. 아마도 어머니의 가슴에는 삽과 괭이를 든 사랑스런 아들들의 모습이 사진처럼 찍혔으리라.

우리는 더위를 피해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나는 어머니가 앉아 계시는 그늘진 엉개나무 아래로 갔다. 그곳은 어머니와 둘만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이었다. 아들은 세월을 뛰어 넘어 할아버지가 되어 어머니의 품으로 찾아 든 것이었다. 어머니의 곁은 너무나 편안했다.

마치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듯 했다. 또 한 장, 추억의 사진이 찰칵 가슴에 찍히는 순간이었다.

한번은 어머니에게 텃밭을 더 이상 하지 말 것을 말씀 드린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텃밭이 내 나이에 무리라는 것은 잘 알고 있다. 사실 좀 무리를 하고나면 며칠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끔끔 알아놓게 된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심심하기도 하고 밭에 나와 있으면 마음이 그렇게 편안 할 수가 없다.

그리고 너거 아버지와 함께 텃밭을 일구었던 좋았던 기억도 떠오른다.” 하시면서 계속 할 것을 고집하셨다. 어머니의 가슴에는 텃밭에서 찍은 아버지의 사진 한 장이 고이 간직되어 있으신 모양이다.

파종은 때를 늦추면 안 된다. 그저께 비가 충분히 내렸으니 밭에 삽질하기도 수월 할 것이다. 그런데 아직 어머니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다. 이번에 텃밭에 가면 어머니의 사진을 많이 찍어야겠다.

우리들 사진을 간직하신 어머니처럼 나도 어머니의 사진을 오래 간직하고 싶다. “애미야, 밭갈이를 해야겠다. 시간이 언제 되겠노?” 하시느 목소리를 기다리며 돌아온 사진들을 상자에 채겨 넣는다. ♪



붉은머리 오목눈이 뱀새

정옥식
조류학박사
환경생태연구원



지난 주말 속리산을 다녀왔었다. 아침 일찍 서둘렀지만 주말인터라 산은 이미 초입부터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사무실을 지나 몇 걸음 못한 지점에서 붉은머리오목눈이 떼를 만났다.

싸라나무와 환삼덩굴을 지나더니 밭 사이로 난 작은 길에 이르자 잠시 정체를 한참 후 이내 이 삼삼오오 길을 건너 억새밭으로 다다랐다.

다섯, 열, 스물 그 수는 점차 늘어 50을 넘는다. “비, 비, 비” “짓짓 지 지짓...” 서로 앞서거나 뒤서거나 소리 뿐 만 아니라 행동 또한 요란스럽다. 길을 건너는 무리의 수를 헤아리기 위해 쌍안경을 대고 지켜보고 있노라니 지나는 등산객이 묻는다. “뭐하십니까?” “새 봅니다.” “무슨 새요?” “뱀새요.” “어디요?” “저기 억새밭.” “아.... 제 네가 뱀새입니까?” “정말 뱀새처럼 생겼네요?” 삼삼오오 연이어 도착한 그와 일행으



로 보이는 사람들 모두가 그의 말에 동의 한다. 뱀새 즉, 붉은머리오목눈이는 딱새과에 속하며 크기가 13cm 정도이다. 꼬리가 전체 몸길이의 절반정도인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몸통의 길이는 6-7cm에 지나지 않는 작은 새이다. 눈도 작고 작은 부리는 도톰해서 더욱 작게 보인다.

따라서 작은 외모 탓인지 학술적 명칭인 ‘붉은머리오목눈이’보다 세간에 흔히 알려진 ‘뱀새’라는 이름이 더욱 잘 어울린다.

붉은머리오목눈이는 우리나라 전역에 흔히 분포하는 텃새로 인가나 농경지 주변의 덩굴이나 풀숲에 주로 서식한다. 야산 언저리의 저지대 뿐 만 아니라 높은 정상 부근의 개활지에서도 관찰된다.

봄부터 여름까지는 무성한 덩굴 아래서 한쌍씩 짝지어 은밀하게 홀어져 번식하므로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지금처럼 가을 바람이 불고, 무성한 덩굴이 떨어지고 덩굴도 매 말라 가려졌던 땅들이 맨얼굴을 드러내면 뱀새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게다가 수심에서 맑게는 백을 넘는 개체군을 이뤄 소란스럽게 다니다 보니 더더욱 쉽게 눈에 띈다.

붉은머리오목눈이는 전세계적으로 한국, 중국 등 동북아시아에 국한되어 분포한다.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을 않았기 때문에 이 종의 생태에 대한 정보는 많지 않다. 그러나 국내에 한정지어 본다면 가장 많이 연구된 새 중 하나일 것이다.

국내의 경우 조류를 연구하는 사람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 종에 관해 여러 명의 학자가 연구한 경우는 매우 드물다. 20여년 동안 여러 명의 연구자들이 학위논문 대상으로 붉은머리오목눈이를 연구하였으며 지금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80년대 말 90년 초부터 진행된 연구에서 두 가지 색의 알을 낳는다는 것이 처음으로 밝혀졌으며 이후 이러한 알의 색은 모계중심으로 유전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 흥미롭고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으며 분야 또한 탁란과 관련한 방어 기작과 사회행동학, 유전학 등 다양해지고 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붉은머리오목눈이는 흰색과 푸른색의 두 가지 색의 알을 낳으며 모계를 통해 유전된다.

예로 어미새가 푸른색 알을 낳는다면 딸도 푸른색 알을 낳는다는 것이다. 두 가지 알의 색을 지닌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확실한 것은 탁란에 대한 방어기작으로 잇점을 지닌다는 것이다.

빼꾸기의 알은 푸른 색을 띠므로 흰색 알의 둥지에 탁란을 할 경우 눈에 띄어 붉은머리오목눈이에 의해 쉽게 제거될 것이다. 반면 푸른색의 알은 빼꾸기에 의해 탁란 당하더라도 구별되질 않아 붉은머리오목눈이는 자신의 알로 받아들여 빼꾸기의 새끼를 키우게 되는 것이다.

흰색의 알은 탁란에 대한 방어 기작으로 잇점이 있기에 개체군 내

비율이 높을 듯 하지만 사실 푸른색 알의 절반 이하이다. 이에 대한 이유는 현재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다른 새들과 마찬가지로 붉은머리오목눈이에 대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가락지 작업을 통해 이뤄진다. 개체 마다 가락지를 달아 표지를 하고 고유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이후 몇 대에 걸쳐 추적을 통해 여러 가지 자료를 축적하게 된다. 표지된 모든 개체의 부위별 크기, 몸무게, 유전자 정보 뿐 만 아니라 필요에 따라 번식 자료도 된다.

이를 통해 2007년 태어난 27번과 72번의 딸 34번과 2006년 태어난 62번과 80번의 아들 352번이 번식을 하였고 2008년 암컷 15번, 16번과 수컷 17번, 18번을 낳았다는 식의 자료도 도출할 수 있다.

해를 거듭할수록 자연사하기도 하지만 천적에 의해 포식되거나 이주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소실율이 높기 때문에 많은 개체에 대한 표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붉은머리오목눈이가 군집을 이루게 되는 가을철부터 번식을 위해 흩어지는 다음해 봄 이전까지 연구자들은 생포에 전력투구하게 된다. 최근에는 장비도 개선되고 무엇보다 축적된 노하우로 인해 개체군 내 표지된 개체의 비율이 높지만 연구 초기엔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도 포획율은 저조하기만 하였다.

그 당시의 일이었다. 90년대 초반으로 기억한다. 학위논문을 위해 붉은머리오목눈이를 포획하던 선배를 도우러 연구 현장을 갔었다.



선배는 처음 몇일 간은 쉽게 포획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포획 방법에 적응한 붉은머리오목눈이들은 미리 눈치를 채고 그물 방향으로는 좀처럼 가질 않는다고 했다. 혼자서 그물을 이곳으로 저곳으로 수십 번을 옮기고 그물을 위장하거나 퇴로를 막는 등 온갖 방법을 동원했지만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고 한다. 시간은 가고 번식철은 다가오고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일년을 기다려야하므로 선배는 매우 초조해하고 있었다. 일손이 늘어난 관제로 그물을 추가로 설치하고 예상되는 퇴로에 그물을 설치하였다.

뱀새가 몰려있는 갈대밭의 내부와 외부 그리고 하늘엔 매가 뜬 것처럼 위장을 하고 세방향에서 위협을 가하면서 동시에 몰았다. 결국 반나절에 걸친 노력이 헛되지 않게 수십마리의 뱀새가 그물에 달려들었고 그물 속에서 서로 뒤엉키며 찢어지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우리는 뱀새보다 더 큰 환호성을 지르며 그물로 달려들었다. 한 마리라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고가[※]의 그물을 찢어 가면서, 손을 깨물고 물어뜯기는 고통도 참으며 한 마리, 한 마리씩 소중히 떼어내었다.

선배에겐 뱀새 한 마리의 가치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이었을 것이다. 모두를 안전하게 망속에 집어 넣자 선배는 가락지를 준비하겠다고 부리나케 먼저 강을 건너갔다. 나도 요란 뱀새 출렁이는 망의 입구를 단단히 막고 선배가 있는 강 저편으로 가기 위해 징검다리위를 달렸다. 강 건너편에 다다르기 위해 마지막 발돋움을 하는 순간

나의 몸은 수평으로 공중부양을 하듯 하늘로 치솟아 오른 후 차가운 겨울 강에 첨벙 떨어졌다.

다행히 엉덩이가 징검다리 돌 위에 정확히 앉은 탓에 다치진 않았지만 바지와 팔은 물에 흠뻑 젖었다. 마지막 돌이 젖은 탓에 기름을 바른 것처럼 몹시 미끄러웠다. 안도의 숨도 잠시 뱀새가 든 망의 행방이 궁금했다.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주변을 급히 살폈지만 망은 보이지 않았다.

설마하고 마지막으로 내린 시선 끝에 물 속에 깊이 놓인 망이 보였다. 얼른 꺼내들었지만 그렇게 들쭉이던 망은 움직임이 없었다. 망 속을 들여다 볼 필요도 없었다.

심장이 멎은 뱀새들처럼 나도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이번 가을에도 뱀새를 연구하는 후배는 가락지 작업을 위해 그물을 치고 뱀새 포획에 여념이 없다. 도와주려갈까 하다가도 그때를 생각하며 참는다.

그리고 웃는다. 이번 가을 산행에서 뱀새를 찾아보자 산행의 초입이 아니라면 정상 부근의 관목숲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마다 지닌 지난 여름날의 사연에 귀 기울여보자. 그들 속엔 누룩뱀에게 형제나 배우자를 잃은 녀석도 있을 것이고 자신의 새끼 모두를 잃고 뽕꾸기를 키워낸 녀석도 있을 것이고 네 마리의 새끼 모두를 건강히 키워낸 녀석도 있을 것이다. 듣고 있자면 그들의 뉘두리는 끝이 없다. ♪

차를 마시는 여러 형태 중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차를 마시나요?

김정애
다도전문가
정각사 교도



지구상에 차를 마시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아마 수십억 정도의 사람들이 차를 마시고 있고 각자 차를 마시는 형태나 차를 마시면서 느끼는 감정 그리고 차를 접하는 태도 또한 너무나도 다양할 것입니다. 차를 마시는 사람들의 그 다양한 모습들은 다 알 수 없지만 어떤 형태로 차를 마시는지에 대해 알아 볼까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차의 맛이나 향기보다는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바로 효능을 중요시하여 차를 약으로 생각하며 마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차를 마시면서 어떤 면에서 효능이 있는지 생각하며 차를 마시고, 차를 좋아하지 않다가도 효능이 있



다면 차의 쓰고 짙은맛은 잊고 고진감래(苦盡甘來)라며 그냥 마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차를 음미하기 보다는 마신다는 데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며, 얼마만큼의 차를 어떻게 마셔야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는 과거에도 차가 약으로 쓰이기 시작하면서 여러 문헌들에서 그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차는 농업의 신인 신농(神農)에 의해 최초로 발견되면서 약용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조선시대 허준의 동의보감에서도 차는 “체온을 내리게 하고 체한 것을 소화시켜주며 머리를 맑게 해주고 소변을 잘 누게 하며 불에 데어 화상을 입은 곳을 해독 시켜준다.”하며 차의 약효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차의 효능은 유럽인에게도 전해져 초기에 유럽인들은 차를 동양의 신비한 약으로 생각하고, 심지어 차를 마시면 모든 병을 치유할 수 있으며 장수의 비결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현재 유럽에서는 차는 기호음료뿐만 아니라 건강음료로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차에는 중독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을 하는데, 그 만큼 차를 가까이 오래도록 마셔 습관화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은 차가 생활의 일부로 차를 마시는 것이 항상 생활화되어 있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간단하게 마실 수 있는 차의 음용 방법인 티백(tea bag)을 얘기 해 볼까 합니다.

티백의 유통은 100년 정도 되지만 영국에서는 80%를 넘을 정도로 보급률이 높은 가장 대중화된 차를 마시는 형태입니다. 티백은 한 미국인에 의해 의도치 않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과거 미국의 차 수입상들은 여러 가지 차를 주석 용기에 넣어 소매상에 보냈으며 소매상은 시음한 뒤 주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입상 한분이 이 주석용기가 무겁고 아까워 비단주머니에 넣어서 보냈는데 이것을 받아본 소매상이 차를 주머니에 넣어 판매하는 것이 편리할 것 같아 차와 비단주머니를 같이 수입하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종이 주머니로 바뀌며 현재 티백의 모습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통을 중요시 하던 영국인들은 티백으로 차를 마시면 차의 맛과 향을 떨어뜨린다고 여겨 영국왕실에 납품하던 대표적인 차 회사인 트와이닝 twining 사에서는 티백을 생산하지 않았고 이름도 없던 립턴 lipson 사는 티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대량생산하게 되어 현재는 트와이닝 사에 버금가는 회사이자 차의 대중화에 기여한 회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차에 격식을 갖추어서 습관처럼 마시기에는 현대사회가 여유롭지 않으니 티백의 편리함은 생활을 이어가는 형태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싼 차가 품위를 높여준다는 생각의 사치스러운 형태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홍차 회사들은 자산들만의 노하우로 개발된 여러 등급의 차를 섞어 최상의 맛을 내는 블렌딩 기술을 갖고 있으며 이

것을 회사의 극비로 여기어 차의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치스러운 과거 서양인들이 동양의 다도를 모르고 그 모습에 감탄하여 신비하고 고상하게 여겼으며, 이러한 영향은 차를 찻잔에 마시지 않고 찻잔 받침에 마시는 그림들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양의 차 문화가 유럽 상류층들에게 차를 마시는 자체가 권력이나 부를 상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원래 동양에서 말차(가루차)나 진한 차를 마실 때 순한 맛을 느끼기 위해 공기와 함께 소리를 내며 마셨는데, 이 모습을 모방한 유럽 사람들은 찻잔에 담긴 차가 뜨거워 찻잔 받침에 차를 부어 의미도 모른 채 소리를 내며 마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차의 맛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78년도부터 차의 정신과 형식에 따라 다례가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수사람들은 다례의 주목적인 차를 맛있게 우려내고 타인과 진실된 교감을 하며 정신적인 풍요로움을 얻는 것을 깜박 잊어버리고 값비싼 다구와 옷의 과시 그리고 남들과 다른 문화에 대한 우월감을 나타내기 바빠지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품위는 스스로 정해서 만들어 가는 것, 우리의 차 문화도 이제는 성숙한 단계를 뛰어 넘어 더불어 마시며 사람과의 만남이 원활하고 즐거움이 배가되는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



신은 손이 없잖은가

범일 정사
수인사주교



한 스승이 제자 한 명과 함께 여행을 떠났다. 제자는 낙타를 돌보기로 하였다. 날이 저물고 지친 두 사람은 사막에 텐트를 치고 쉬기로 하였다. 제자는 낙타를 잘 돌볼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제자는 낙타를 그냥 놔둔 채 신에게 기도만 하였다.

“신이시여, 낙타를 부디 잘 돌봐 주소서.”
그리곤 지쳐서 그만 잠이 들고 말았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낙타가 온데간데없었다. 낙타가 제발로 어디를 간 것인지 아니면 도둑을 맞은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어쨌든 낙타는 보이질 않았다.

스승이 물었다.

“얘야, 낙타는 어디 있느냐! 보이질 않는구나.”
제자가 말했다.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제 분명 낙타를 잘 좀 돌봐 주십사하고 신께 맡겼거든요. 그리곤 너무 피곤해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요.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막을 낙타 없이 어떻게 건너간단 말이나.”

“어쨌든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 신에게 맡겼거든요. 스승님께서도 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전 그저 신을 믿었을 뿐이라고요.”

스승이 말했다.

“신을 믿되, 우선 낙타를 잘 묶어 뒀어야 했잖니. 신은 그대와는 달라. 손이 없잖은가.”

신에게는 손이 없고, 발이 없고, 머리도 가슴도 없다. 그래서 뻗치지 아니하는 데가 없고, 닿지 아니하는 데가 없으며 모르는 게 없으시다. 그렇기에 그대는 손을 놀리고, 발을 구르고, 머리를 돌리고, 가슴을 울려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이고 불공이다. 선업을 쌓고 불선업을 멀리하는 것에 손발이 그리고 머리와 가슴이 동원되어야 한다. 1



빛의 화가들 전시를 보고 와서

여순애
자석사교도



가을로 가는 어느 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을 따뜻하게 느끼며 부산문화회관 전시실에서 빛의 화가들 전시를 관람했습니다. 빛의 화가란 말 그대로 빛이 보여주는 세계를 자신들이 느끼는 인상대로 화폭에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상주의 화가라 합니다.

그 당시 프랑스에선 화가들이 정밀하게 인물을 표현하였는데, 인상주의 화가들이 등장한 것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전시 작품을 설명해 주시는 큐레이터께서 “이 화가들의 작품은 자신의 삶이 많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을 많이 설명하였습니다. 대표적인 화가로는 고흐, 고갱, 모네, 마네, 루노아르가, 세잔, 드가를 들 수 있습니다.

고흐의 대표작으로는 “별이 빛나는 밤”을 들 수 있습니다. 서른 일곱 살의 나이로 목숨을 끊은 천재 화가였지만 일생동안 단 한 점의 그림도 팔지 못했습니다. 기괴하고 괴팍한 성격을 이기지 못해 귀를 자른 정신병자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림을 꿈꾸고 꿈을 그리는 화가라 다

시 기억해야 하지 않을까요? 드기는 불운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모델인 화폭의 여자와 시선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그러하여 군중 속에서도 개인적인 시간을 즐겼습니다. 발레리나를 많이 그렸으며 사진을 찍어 그 사진을 그렸습니다. 모네는 “해돋이”가 대표작인데 말년에는 추상화의 형태와 비슷해 졌습니다.

빛에 대한 독자적인 해석 특유의 작업 방식은 후대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세잔은 대상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자기의 감각을 실현하는 구도를 잡았습니다. 고갱은 고흐와 같은 공간에서 작업을 하기도 했지만 타히티로가서 자신의 유토피아를 추구합니다. 대표작은 “타히티의 연인들”을 들 수 있는데 그의 작품은 야수와 화가들과 젊은 시절의 피카소 등 입체파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번 전시는 액자에 갇힌 그림을 벗어나 초대형 파노라마 영상으로 구현하여 미디어 아트 전시의 절정감을 표현했습니다. 사방에서 작품이 움직이면 그 방 속에서 감상하는 것인데 생동감이 있었습니다.

중앙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작품과 하나가 되어 감상하는 것은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각 방마다 작가들의 대표작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방은 넓은 홀에서 인상파 화가들 전체 작품이 미디어 아트로 표현되었는데 웅장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디어 아트 전시보다 액자 속 그림이 더 좋다는 의견도 있었는데 의견 차이 인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전시 명화의 파노라마 속으로 빠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동화구연을 배우며

김정숙
자석사교도

나이 들어 취미 활동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며 배움을 갖는 것은 흥미롭고 보람된 일인 거 같다. 요즘은 신중년을 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이 정부 정책에 의해 각 구청이나 복지관, 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학습관들로 홍수를 이루니, 배우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 학습할 수 있기에 참으로 감사할 일이다.

2년 전, 우연한 기회에 알게된 건강체험관에서 만난 좋은 선배와 멋진 후배, 후배의 주선으로 그녀들과 함께 동화구연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친구가 그리운 내게 이들은 좋은 인연으로 다가왔으니 이 또한 부처님의 가피가 아닐런지!

동화구연은 동화를 음성에 변화를 주어 연기하듯 재미있게 들려주는 것이다. 이야기에 나오는 캐릭터별로 성대모사를 하며 구연을 해야 하는 작업이므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허스키한 보이스를 갖고 있는 내겐 쉽지 않은 도전이었기에 큰 용기가 필요하였다.

동화구연을 배운지 어언 다섯 달, 처음엔 여러 회원들 앞에서 문장을 읽는거조차 쑥스럽고 부끄러워 가슴 떨림이 있었지만, 이젠 제법 성대모사를 하기에 이르렀으니 조금은 나아진 듯하다.

비록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이지만, 낯선 사람들과 친분을 맺으며 갖는 배움은 새로운 경험이자 설레임도 있기에 즐거움을 가져다 준다.

실력꾼 후배는 이번 학습으로 일년에 한 번 개최하는 동화구연 경연대회에서 '은상'을 획득하였다. 그녀 역시 색다른 경험이자 장족의 발전이다. 더 나아가 요양센터의 환우들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자원봉사 활동도 하게 되었으니, 취미로 시작한 일이 은퇴 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고 있다.

평소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발표 불안증이 있는 나로선 당당한 후배 모습이 그저 부럽기만 하다. 언젠가는 그녀처럼 자신있는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희망하며 오늘도 배움터로 향한다. 다음 달엔 새로운 분야의 취미 활동도 결들일 생각이다.

시니어에 그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일들을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 개발이자 보람되고 가치있는 일인 듯하다.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



밀교의 금강살타는 현교의 보리살타 菩提薩埵, 즉 보살과 대비되는 말이다. 현교에서 보리는 '깨달은 것'을, 살타는 '중생'을 의미하므로 보리살타는 '깨달은 중생'의 뜻이다. 밀교에서 금강은 진리 또는 실존을 의미한다. 사뜨와 卍의 음역인 살타는 현교와 동일하게 중생을 뜻한다.

그러므로 금강살타란 비로자나불의 진리설법인 금강으로 관정을 받은 중생이다. 즉 비로자나불의 법을 받은 분이다. 따라서 밀교의 제2조가 되나 실존하는 인물은 아니다.

밀교의 법통상속은 현교처럼 역사상의 인물인 석가모니불의 가르침을 스승이 그 제자에게 전달하는 형식이 아니다. 진리 그 자체의 인격화인 비로자나불의 가르침이 현재의 우리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용맹(용수) 용지 금강지 선무의 불공 등의 실존하는 인물이 필요하다.

이때 진리 자체인 비로자나불과 역사상의 인물인 용맹(용수)을 연결하는 분이 금강살타이다. 따라서 금강살타는 가상적인 인물이다.

대승불교에 등장하는 관세음보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등의 대보살은 전생보살이나, 범부보살과 달리 불법을 설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중생의 염원을 듣고 도울 수 있는 초월적 능력을 지닌 보살이다.

대보살은 중생을 구호하는 종교적 대상이기도 하며, 붓다를 대신해

설법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붓다와 동일한 지위에 있지만 바라밀승의 전통에서 보살은 자신의 서원에 의해 중생을 모두 구제할 때까지 성불의 지위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정의된다.

대일경 에는 성불에 대해 열반에 든 붓다라도 영원히 중생구호하는 실천적 존재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전통적인 붓다와 보살에 대한 관념에 새로운 해석을 시도했다. 경전에서 설해진 일체지지-일체성 一切性은 모든 붓다들이 통달한 것으로 경전의 비로자나불은 법신불이면서 동시에 원력에 의해 중생을 구호하는 신변을 보이는 전지전능의 지혜를 보이고 있다. 금강살타는 일체지지에 통달해 비로자나여래와 동등한 깨달음에 있지만, 동시에 대보살과 같은 이타행의 구현자이다.

밀교에서 금강살타 등의 새로운 붓다가 출현한 것은 기존의 보살이 지닌 전통적 해석을 극복한 것이다. 즉 진언문의 보살은 궁극적으로 열반 법신을 성취한 붓다지만, 중생구호를 위해 대보살의 능력을 지니고, 영원히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는 밀교의 새로운 이상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1

건달

乾達

乾 하늘,마를 - 건 | 達 통달할 - 달

- ①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거나 게으름을 부리는 짓. 또는 그런 사람.
- ②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난봉을 부리고 돌아다니는 사람.
- ③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털터리.

건달^{乾達}은 16세기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본래 불교에서 팔부중의 하나로 음악을 맡아보는 신^神인 간다르바를 한자의 음을 이용해 표기한 중국어 건달바^{乾闥婆}에서 유래된 말로, 원래 하는 일없이 빙빙거리며 노는 사내를 말하는데, 난봉이나 부리고 다니는 불량한 사람 혹은 폭력을 휘두르며 남을 괴롭히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확대되어 쓰인다.

건달바는 향을 먹고 사는 신으로 허공을 날아다니면서 노래만 즐기기 때문에,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놀거나 게으름을 피우는 짓 또는

그런 사람을 일컬어 건달이라 하게 되었다. 인도신화에서는 천상의 신성한 물 소마^{Soma}를 지키는 신. 그 소마는 신령스런 약으로 알려져 왔으므로 건달바는 훌륭한 의사이기도 하며, 향만 먹으므로 식향^{食香}이라고도 한다.

식향^{食香}·향음^{香陰}·심향^{馨香}·심향행^{馨香行}등으로 한역되며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는 건나라와 함께 제석천의 음악을 담당하는 신이며, 고기와 술을 먹지 않고 향만을 먹는다. 항상 부처님이 설법하는 자리에 나타나 정법을 찬탄하고 불교를 수호한다. 인도에서는 음악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둘째는 사람이 죽은 뒤 다른 몸을 받기 전인 영혼신^{靈魂身}, 곧 중음신^{中陰身}·중유^{中有}등으로 한역한다. 태어날 다른 곳을 냄새로 찾아다닌다고 하여 심향행이라고도 불린다.

모두 사자의 갈기와 같은 관을 쓰고 있다. 석굴암의 8부중, 경주남산의 동서 3층 석탑,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8부중의 석재, 경주박물관 소장 8부중에서 볼 수 있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건달패”라는 용어는 여기서 유래된 것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 또는 불량배 집단을 일컫는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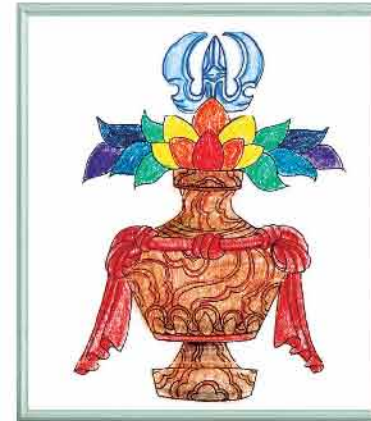


손끝에서 찾는 마음의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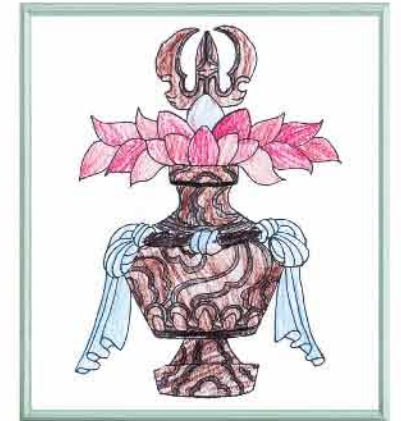


색을 칠하면서 마음이
평온해지기를 소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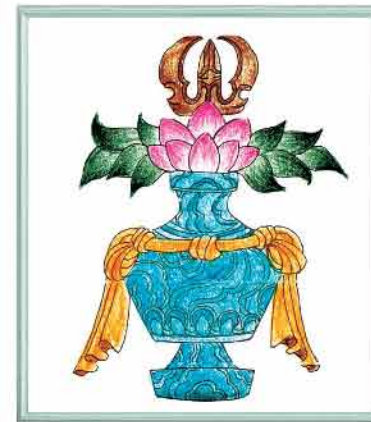
지난 호 독자 솜씨



▲ 서울 이현아



▲ 서울 김정란



▲ 부산 변상희



▲ 대구 박남순

색칠해서 편집실로 보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이메일 : news@chongji.or.kr 카카오톡 친구추가 : 불교총지중 정보실
각 사원 주교님께 전달해주시면 독자 솜씨란에 기재됩니다.

❀ 불교총지종 법회 일정 ❀

공식불공	매일 오전 10시	부처님오신날	매년 음력 4월 8일
자성일불공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상반기 49일	매년 양력 2월 19일 ~ 4월 8일
월초불공	매월 월초 첫째 주 7일간	하반기 49일	매년 양력 5월 28일 ~ 7월 15일
신년불공	매년 1월 첫째 주 7일간	진호국가불공	매년 양력 7월 15일
중조탄신일	매년 양력 1월 29일	해탈절(우란절)	매년 양력 12월 24일
중조멸도절	매년 양력 9월 8일	창교절	

❀ 불교총지종 연중 불사 ❀

신년불공 한 해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하는 불공 상반기, 하반기 진호국가불공 불교총지종은 창종 이래 진오국가 오국안민의 정신으로 항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진오국가 불공을 올리고 있다. 연중 불사에 부국강병, 국태민안, 조국평화통일을 기원. 특히 매년 2월 19일부터 49일간 5월 28일부터 49일간을 상·하반기로 하여 '진오국가불공기간'으로 정하고 『수오국계주경』에 의한 진언 '음용야오샤'로써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불공. 월초불공 매월 첫째 주 7일 동안 나라의 안녕과 일체중생의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자성일 불공 매주 일요일에 자신의 본성을 찾고, 일체중생의 재난소멸과 행복을 기원 드리는 불공.
--

❀ 불교총지종 사원 일람 ❀

사원명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통리원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3
수련원	28065	충북 괴산군 청천면 이평리 359-11	(043)833-8133
동해중학교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사회복지재단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776-2	(02)3452-7485
서울, 경기교구			
관성사	03041	서울특별시 종로구 송월길 110 관성빌딩	(02)736-0950
밀인사	03112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63길 22 (송인동)	(02)762-1412
법천사	13389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시민로11번길15 (하대원동)	(031)751-8685
벽룡사	08702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36 (신림동)	(02)889-0211
시법사	21358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75번길 6 (부평동)	(032)522-7684

실지사	01162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30길 51	(02)983-1492
정심사	02137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로 95길 26	(02)491-6888
지인사	21436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암산로 3 (십정동)	(032)528-2742
총지사	06227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25길 35(역삼동)	(02)552-1080
충청, 전라교구			
만보사	35045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산공원로530번길30 (대사동)	(042)255-7919
백길사	35335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409-1 (도마동)	(042)527-5470
법환사	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21-1 (구동)	(062)676-0744
해정사	2848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131번길5 (내덕동)	(043)256-3813
흥국사	55049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따박골5길 12 (효자동1가)	(063)224-4358
중원사	28065	충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이평4길 266-78	(043)833-0399
대구, 경북교구			
개천사	41958	대구광역시 중구 명륜로23길 38-10 (봉산동)	(053)425-7910
건화사	38009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월교동길 6-4	(054)761-2466
국광사	38145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 77 (동부동)	(054)772-8776
단음사	38843	경상북도 영천시 서문길 33 (성내동)	(054)333-0526
선립사	37541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한동로 79-8	(054)261-0310
수계사	38048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하구3리 다정길36-19	(054)745-5207
수인사	37705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서동로 67 (덕산동)	(054)247-7613
승천사	38129	경상북도 경주시 구정3길 20-1 (구정동)	(054)746-7434
제석사	41237	대구광역시 동구 효목로7길 16 (효목동)	(053)743-9812
부산, 경남교구			
관음사	4726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신천대로197번길 35(당감동)	(051)896-1578
단황사	53075	경상남도 통영시 데매4길 15	(055)644-5375
덕화사	46547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 32-8 (덕천동)	(051)332-8903
밀행사	50427	경상남도 밀양시 노상하4길 6 (내이동)	(055)354-3387
법성사	48817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상로 82-1 301호 (초량동)	(051)468-7164
삼밀사	49060	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서로109 (영선동1가)	(051)416-9835
성화사	48959	부산광역시 중구 흑교로78번길 17 (보수동1가)	(051)254-5134
실보사	44452	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4 (태화동)	(052)244-7760
운천사	51257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완월동17길12(자산동)	(055)223-2021
밀상사	50409	경상남도 밀양시 상동면 금산5길 4	(055)352-8132
자석사	48245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서로54번길 47 (광안동)	(051)752-1892
정각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9 (명륜동)	(051)552-7901
화음사	52707	경상남도 진주시 강남로301번길 8 (명경동)	(055)755-4697
동해사	47756	부산광역시 동래구 시일로 19-39 (명륜동)	(051)556-0281~2

위드 다로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발행일 총기 48(2019)년 10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희
발행 불교총지중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 ~3
팩스 02-552-1082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로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로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정자	강민두	곽노선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봉래
김성민	김송자	김양숙	김윤서
김은숙	김종철	김희원	류경록
류승조	배도련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안한수	양진운	오승현
오재원	오현준	유광자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일심정
장정원	장승엽	장민정	정재영
주건우	지 정	총지화	최순기
최재실	한미영	한영희	허지웅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에서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위드 다로마

With Dharma
영원한 진리와 함께

편집 후기

불자님의 사연을 모십니다

생활하면서 느끼시는 작지만 소중한 생각이나 사연,
위드다로마에 대한 느낌이나 의견 등 담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 주세요. 여러분의 사연들이 법의 향기로
전해집니다. 전화나 이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메일 news@chongji.or.kr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에 연재글 있습니다 *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위드다로마를 위해 법보시 해 주시는 후원금은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불법을 전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입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22-047811-13-128 불교총지중

보내주신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강정자	강민두	곽노선	권도연
권순갑	김덕원	김도연	김봉래
김성민	김송자	김양숙	김윤서
김은숙	김종철	김희원	류경록
류승조	배도련	서금엽	손경옥
손재순	안한수	양진윤	오승현
오채원	유현준	유광자	유정식
이영재	이인성	이혜성	일심정
장정원	장승엽	장민정	정재영
주건우	지 정	총지화	최순기
최재실	한미영	한영희	허지웅

- 불교총지중 홈페이지 총지미디어에서
구독 신청해주시면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 아들이 역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아들 덕분에 나도
아들과 함께 역사책을 보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역사탐방을 기획하게 되고,
자체 탐방과 기존 프로그램 역사탐방에
참여하는 시간들을 보냈다.

먼저 고궁부터 시작하여 정동길까지 탐방하는
과정에서 나도 새롭게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역사탐방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깊어가는 가을에 정동길 산책과 함께 역사를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들과 함께 이른 시간에 도착해서 한적한
덕수궁 돌담길 사진도 찍었다.
아들과 함께하는 데이트도 좋았다.



발행일 총기 48(2019)년 10월 1일
발행인 인선
편집책임 이선희
발행 불교총지중
주소 06227 서울 강남구 도곡로25길 35 (역삼동)
전화 02-552-1080 ~3
팩스 02-552-1082

10월호



떨쳐 일어나야 할 때 일어나지 않고,
젊음만 믿고 힘쓰지 아니하고,
나태하며, 마음이 약해 비굴하면
그는 언제나 어둠 속을 헤매리라.

- 범구경 -